

손명수 차관, “첨단기술 접목한 도로안전 혁신” 강조 9일 인제양양터널 찾아 터널 원격제어 시연·SOC 디지털화 적극 추진 당부

-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일(수), 강원도 인제군의 인제양양터널 관리사무소를 찾아 도로의 디지털화를 통한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- 손 차관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인 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브리핑을 받으며, 터널 내 비상상황 자동 인식 시스템과 진입 차단, 도로전광표지(VMS) 표출 등 원격제어를 직접 시연하고
 - “터널 원격제어 체계 구축을 통해 터널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인지 및 초동대처가 가능해져 2차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”된다면서,
 - “앞으로도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해야”한다고 당부하였다.
- 또한, 손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SOC 디지털화 사업의 기대효과를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.
 - 손 차관은 “디지털 뉴딜 사업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직관적으로 쉽게 풀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홍보 전략을 마련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이번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전국 국도 터널을 대상으로 약 1,182억 원을 투입하여 원격제어체계를 ‘22년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.

2020. 9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